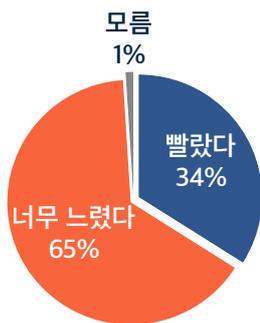


● 현재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이와 관련 미국의 조사 통계 자료를 소개한다.

1 코로나19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, 미국인 3명 중 2명(65%)이 '주요 조치가 너무 느렸다'

- 미국 퓨리서치센터(Pew Research Center)가 미국인에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당시 국민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조치 속도에 대해 묻은 결과, 65%의 미국인이 '주요 조치가 너무 느렸다'고 응답해 정부의 늦은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
- 또한 주 정부의 공공 활동 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66%가 '너무 이르다'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에 '최악의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'(73%)로 인식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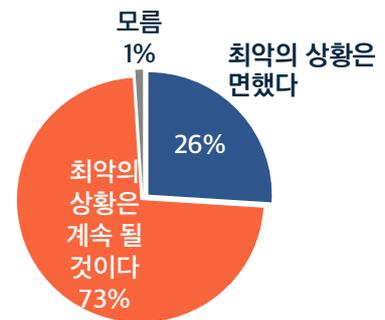
[그림] 코로나19 대응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조치 평가 (%)



[그림] 주 정부의 공공 활동 제한 해제 평가 (%)



[그림] 코로나19로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 인식 (%)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Most Americans Say Trump was Too slow in Initial response to Coronavirus Threat', 2020.04.16. (미국 전역, 성인 4,91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4.07-12)

● 코로나19 대응 관련, 트럼프 대통령 평가 : 의료인 · 공무원 · 시민 · 언론 보다 낮아

-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각각 대상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를 물어본 결과, '보건 의료 공무원'(79%)이 '잘했다'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, 그 밖에 '주 정부 선출 공무원(주지사 등)' 70%, '지방 정부 선출 공무원(시장 등)'(69%), '지역 사회 일반 시민'(63%), '뉴스 미디어'(54%), '트럼프 대통령'(48%) 순으로 나타났는데, 대통령 평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짐

[그림] 코로나19 대응의 각 대상별 '잘했다'** 비율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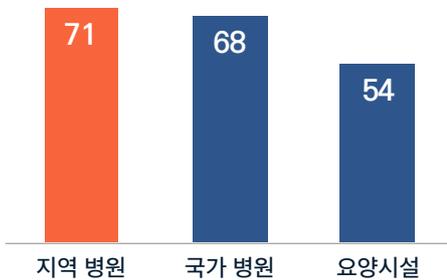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COVID-19: Effect on personal life', 2020. 3.30 (미국 전역, 성인 11,53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9-24)

**'잘했다'는 '매우 잘했다+ 잘했다'의 수치임

2 코로나19 관련, 미국인의 의료기관 신뢰도, 한국보다 낮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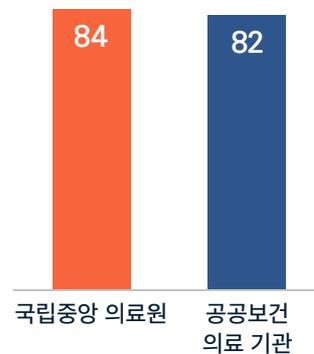
- 의료 관련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환자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를 묻은 결과 '지역 병원 신뢰' 71%, '국가 병원 신뢰' 68%, '요양 시설 신뢰' 54%로 나타남
- 미국인의 의료기관 신뢰도는 한국 경우보다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미국인의 의료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신뢰도(매우 신뢰+다소 신뢰) (%)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COVID-19: Effect on personal life', 2020. 3.30 (미국 전역, 성인 11,53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9-24)

[그림] 우리나라 공적 의료 기관 신뢰도 (매우 신뢰+다소 신뢰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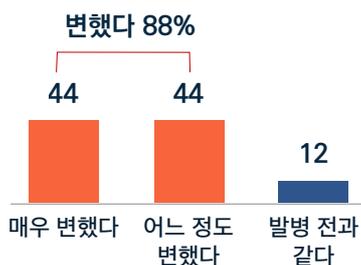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, '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조사 3차' 2020.03.31, 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웹 조사, 2020.03.25-28)

3 미국인, 코로나19로 자신의 삶 '바뀌었다' 88%

-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이후 자신의 삶의 변화를 묻은 결과, 88%가 코로나19로 인해 '자신의 삶이 변했다'고 응답함
- 각 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를 묻은 결과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야 할 때 91%, 식당 방문해야 할 때 77%, 선거를 위해 투표 장소에 가야 할 때 66%,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야 할 때 42%, 가족이나 친구가 집에 방문해야 할 때 38% 등으로 나타남

[그림] 개인의 삶에 코로나19의 영향도 (%)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COVID-19: Effect on personal life', 2020. 3.30(미국 성인 11,53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9-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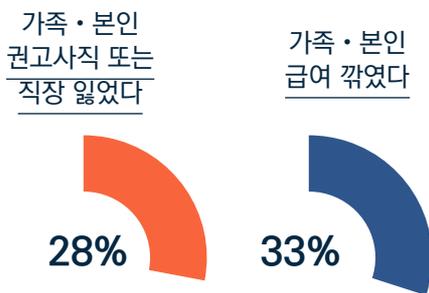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이 느끼는 각 영역별 '불안하다' 응답률 (%)



● 미국인, 본인·가족 중 권고사직 또는 직장을 잃었다 2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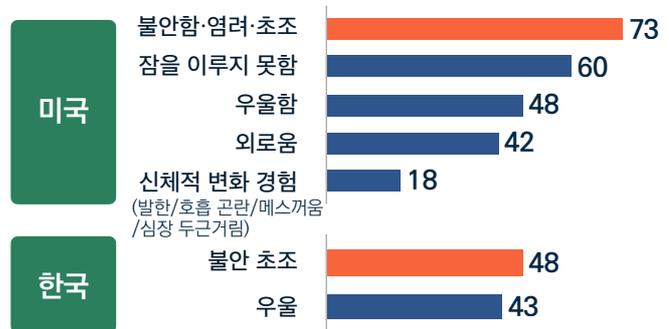
- 미국인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해고당했거나 또는 임금이 깎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‘해고 경험’ 28%, ‘임금 삭감 경험’ 33%, 둘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43%로 나타남
-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적 상태를 물어본 결과, 4명 중 3명 가량(73%)이 코로나19로 인해 ‘불안함·염려·초조를 느꼈다’고 응답하였으며 ‘잠을 이루지 못했다’ 60%, ‘우울함을 느꼈다’ 48% 등으로 나타남
- 한·미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불안·초조·우울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코로나19 관련 직장 변화 (%)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About Half of Lower-Income Americans Report Household Job or Wage Loss Due to COVID-19' 2020. 4.21 (미국 전역, 성인 4,91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4.7-12)

[그림] 지난 1주간 경험한 심리적/신체적 경험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COVID-19: Effect on personal life', 2020. 3.30(미국 전역, 성인 11,53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9-24)

**자료 출처 :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/한국리서치,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 조사, 2020.04.07 (전국 19-70세 성인, 1,014명, 온라인 설문 조사, 2020.03.17-30)

4

미국인, 코로나19 관련 외국 여행객의 미국 입국 금지 '필요하다' 95%

- 코로나19로 각 영역별 필요성을 질문하였는데, '미국에 들어오는 국제 여행객 금지'(95%)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스포츠/엔터테인먼트 취소' 91%, '유치원~고등학교까지 중단' 90%, '10명 이상 모임 금지' 87% 등으로 나타남

[그림] 코로나19 관련 '필요하다' 응답률(각 영역별) (%)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COVID-19: Effect on personal life', 2020. 3.30(미국 전역, 성인 11,53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9-24)

5 미국인, 코로나19로 '온라인·TV 예배 드렸다' 57%

- 코로나19 이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 중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관해 물어 본 결과, 미국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'직접 예배 참석을 줄였다' 59%, '온라인·TV 예배를 드렸다' 57%,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'기도한 적 있다' 55%로 응답함
- 우리나라 개신교인(교회 출석자)은 '온라인·방송 예배드렸다(3/29일 기준) 가 59%로 응답해 미국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종교 활동 변화(미국 vs 한국, 교회 출석자 대상)



*자료 출처 : 퓨리서치센터, 'COVID-19: Effect on personal life', 2020. 3.30(미국 전역, 성인 11,537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9-24)

**자료 출처 : 한목함/한기연, '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', 2020.04.09(전국,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04.02-06)